

감투에 관한 연구

김 은 정*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교수⁺

A Study on the Gamtu

Eun-Jung Kim* · Soon-Che Ka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7. 5. 7 투고)

ABSTRACT

Gamtu was a name recorded in Korean in respect of 'Mo(帽), Moja(帽子), Somoja(小帽子), Jeongmoja(頂帽子), Jeonmo(氈帽), Yangmomo(羊毛帽), Tangeon(宕巾)'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Joseon dynasty which includes various shapes and uses according to wordbook. Also, Gamtu has various phonetic transcriptions, however Manchu pronunciation of 'Moja(帽子)' is indicated as 'Kamtoo' in 『Dongmunyuhae(同文類解)』 so the origin of the word Gamtu should be discussed. Accordingly, I want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Gamtu in this research by studying the history and shape of Gamtu, and Chinese entries annotated in Korean as Gamtu.

Even though we can assume that the etymology of Gamtu is Manchu language as Manchu pronunciation of 'Moja(帽子)' is indicated as 'Kamtu' in 『Dongmunyuhae(同文類解)』, I think the Korean pronunciation of Gamtu already existed because there already was a Chinese transcription of '鬮頭(Gamtu)' in the Goryeosa(高麗史). So, we can conjecture that Gamtu could be originated from Yeojin language which is the same lineage of Manchu.

As a conclusion, Somoja(小帽子), Jeongmoja(頂帽子), Moja(帽子), Jeonmo(氈帽), Yangmomo(羊毛帽), Tangeon(宕巾) had a common feature that they were produced to fit head without visor, and were annotated as Gamtu per woolen cloth was used as Jeonmo(氈帽), Yangmomo(羊毛帽), and Gamtu was just a Korean transcription that includes these names.

Key words: Gamtu, Somoja(小帽子), Jeongmoja(頂帽子), Moja(帽子), Jeonmo(氈帽), Yangmomo(羊毛帽)

I. 서론

어휘집에서 보면 감토 즉 감투는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小帽子·小帽, 帽·帽子, 頂帽子' 등의 한자명칭에 대한 한글명칭으로 기록되어 있고, '氈帽·羊毛帽' 역시 小帽·帽子와 동의어 관계이면서 또한 감토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朝鮮王朝實錄』 및 조선시대 문헌 자료에는 이와 반대로 감투의 우리말 음을 한자에서 차용한 다양한 한자표기 즉 '坎頭·甘吐·甘土·甘套·鬘頭' 등이 사용되고 있는 예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坎頭라는 한자명칭은 이미 『高麗史』여복지의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감투라는 우리말 명칭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연원하여 부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또 감투라는 용어는 '감투 밥', '감투싸움', '감투를 쓰다' 등의 속어나 일반적인 생활언어로도 사용될 만큼 대중적으로 사용된 명칭이며, 오늘날까지도 통용되고 있다.

이처럼 쓰개류의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인 감투는 여러 가지의 한자 표제어와 사음자(寫音字)를 가지고 있고, 어원이나 용어에 관한 정의가 미진한 채 형태나 의미를 회화하여 생활용어로 사용된 예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출토복식보고서에서 당시에 출토된 감투의 형상에 대한 간략한 보고¹⁾와 간찰문(簡札文)을 연구한 자료²⁾에서 감투 또는 감투와 관련된 명칭을 고찰하는 등에 한하고 있어 어원, 종류, 형태 등 구체적인 개념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 제공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어휘집에서 '감투'로 언해한 한자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감투'와 관련된 명칭들 간의 관계 및 명칭의 유래, 형태, 용도, 종류를 고찰하여 감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보고자 한다.

II. 한자 표제어를 중심으로 본 '감투'의 정의

조선시대 어휘집에서 보면 '小帽·小帽子, 帽·帽子, 頂帽子, 氈帽, 羊毛帽'가 감토(감투)로 언해되거나 감투와 동의어로 표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글명칭인 감투의 한자 표기를 '宕巾'으로 기록한 예도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한자명칭과 감투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감투가 포괄하는 의미의 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1. 小帽子, 小帽

한어의 학습서인 『譯語類解(1690)』³⁾에는 '小帽子'의 한글명칭을 '감토'라고 기록하고 있고, 『四禮便覽(1844)』⁴⁾에 의하면 '소모(小帽)가 곧 지금의 감투[鬘頭]'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모자는 그림 1과 같이 명대(明代) 일반남자들의 쓰개로, 챙이 없이 모(帽)가 원추형이며 육판(六瓣) 혹은 팔판(八瓣)으로 구성하였으며, 계절마다 소재를 달리하여 사용했다.⁵⁾ 이러한 소모자는 그림 2, 3과 같이 청대(清代)에 이르기까지도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朝鮮王朝實錄』선조 26년(1603)⁶⁾의 기록에, 중국의 제도를 빌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입자 대신 소모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이어 선조 31년(1608)⁷⁾의 기록을 보면, 천인과 서인에게 입자 대신 소모자를 사용하도록 했던 앞서의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광해 6년(1614)⁸⁾에는 색리(色吏)에게 소모자 1개를 준 기록이 있고, 숙종 37년(1711)⁹⁾에는 북한성(北漢城) 역사(役事)를 마치는데 소요된 재력(財力) 중 소모자가 9백 입(立)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물론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소모자를 사용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9는 조선시대 1400년대에서 1700년대의 소모자, 모자로 분류된 대표적인 출토 유물들인데, 중국의 소모자와 동일한 형태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표 1>에서와 같이 조선 초기·중기의 남녀 출토 유물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챙이 없이 머리의 상부를 잘 덮어씌우는 모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써 대체로 육합모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모자는 중국 명대(明代)·청대(清代)의 쓰개의 하나이나 문헌과 유물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말 명칭으로는 '감토(투)'라고도 하여 낮은 계층의 남자들이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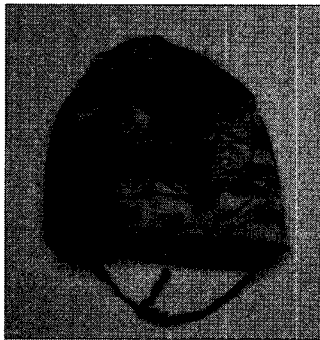
〈그림 1〉 明·成都白馬寺六號墓
出土瓷俑(출처: 『中華五千年
文物集刊 服飾篇下
(中華民國七十五年)』, p. 352)



〈그림 2〉 문인초상/ 중국명대
청대 가필(출처: 『위대한
얼굴(2003)』, p.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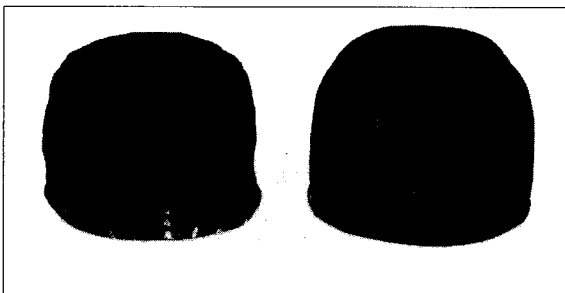
〈그림 3〉 清代 사진초상
(출처: 『위대한 얼굴(2003)』, p.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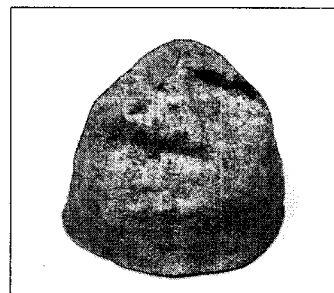
〈그림 4〉 고려신씨
(1530-1580) 육합모(출처 :
『한국복식(1999)』, p. 100)



〈그림 5〉 변수(1447-1524) 모자
(출처 :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2000)』, p. 61)



〈그림 6〉 이천기(1610~1666)의 소모자
(출처: 『문화재대관(2006)』, p.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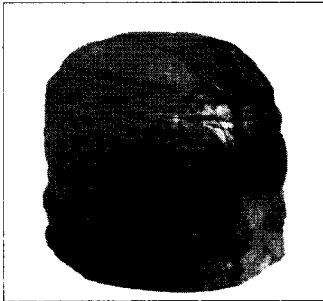


〈그림 7〉 전 박장군묘(17세기
중엽) 편직소모자(출처:
『문화재대관(2006)』, p.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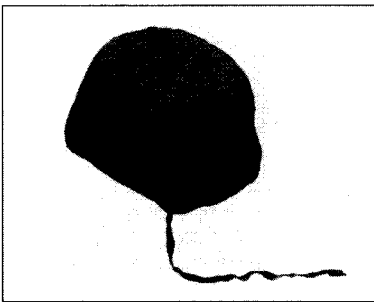
자 대신 사용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8, 9
와 같이 동일 형상의 것이 여성의 분묘에서도 출토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의 사용에 대해서도 짐작
해 볼 수 있으나 다만 상례용이었는지, 혹은 평상시

에도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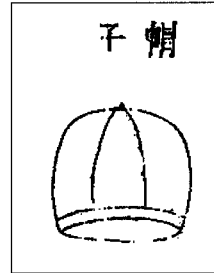
〈그림 8〉 경주이씨(1600년대 추정)
소모자(여모) (출처 :
『조선중기의 우리옷(2000)』, p. 36)



〈그림 9〉 구례손씨(17세기초)
소모자(여모)(출처:
『문화재대관(2006)』, p. 317)

2. 帽, 帽子

『訓蒙字會(1527)』¹⁰⁾, 『新增類合(1576)』¹¹⁾에는 帽의 한글명칭으로, 만주어 학습서인 『同文類解(1748)』¹²⁾에는 帽子的 한글명칭으로 감투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才物譜(1798)』¹³⁾ 등에서 보면 帽, 帽子的 언해가 감투로 표기되어 있어 조선 전반기에서 후반기까지 帽·帽子에 대응되는 한글명칭이 감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三才圖會』에 帽子로 제시된 그림인데, 앞서 제시한 小帽子 혹은 小帽과 동일형태이다. 따라서 小帽(子)와 帽(子)은 양자 모두 같은 형태의 것을 지칭하는 한자명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우리말로도 이들 모두가 감투로 언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明代의
帽子(출처: 『三才圖會
(1607)』, p. 1515)

3. 頂帽子

몽고어의 학습서인 『蒙語類解(1790)』¹⁴⁾에는 頂帽子에 대한 한글명칭을 감투라고 기록하고 있다. 頂帽子라는 한자명칭은 여타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이를 감투라고 언해한 이유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頂'의 의미로 해석해 볼 때 소모자와 같이 정수리에서 합쳐지는 형태를 지칭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明代 일반인이 쓴 巾帽는 당, 송, 원 이래로의 양식이 그대로 유행한 것이 많았으므로¹⁵⁾ 명대의 소모자와 같은 유형의 것이 이전 시기인 원대에도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몽고제국 즉 元代의 회화자료에서 보면 그림 11과 같이 소모자와 같은 형태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小帽子', '帽子', '頂帽子'는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한자명칭으로서, 이들 모두를 우리말로 '감투'라고 언해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1〉 元代 소모자
형태의 쓰개(출처:
『몽골제국(1970)』,
동경: 세계문화사, p.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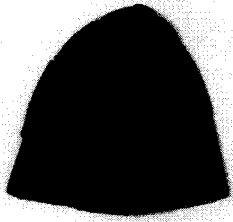
<표 1> 소모자형 쓰개의 출토 예 (명칭, 소재, 색상, 형태에 관한 설명은 보고서 내용에 준함)

분류명	분류 명칭	소재 및 색상	형태	출처
번수 (1447-1524)	모자	공단	삼각형 여섯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육합모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2000), 국립민속박물관.
김홍조 (1461-1581)	소모자 (감투, 모자)	段子, 綿紬	육변에 輪臺를 두르고 꼭대기에 매듭장식	『판결사 김홍조 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1998), 영주시청.
고운 (1479-1530)	소모자 2점	모직/ 갈색 견/ 갈색	고갈형/육변에 輪臺를 두름	『霞川 高雲 출토유물』(2000), 광주민속박물관.
이석명 (1513-1583)	육합모	명주	육합모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2000), 서울대학교 박물관.
고령신씨신관부 (1530-1580)	帽(六合) 四方帽	면(무명), 솜/ 겉: 남색 명주/ 남색	육합/모자 정상은 사방으로 트이고 4점을 중심에서 징금	『한국복식』 17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심수륜묘 (1534-1589)	소모자	면포와 주, 겹	육변에 輪臺를 두름. 꼭대기에 매듭장식	『심수륜묘 출토복식』(2004), 경기도박물관.
일선문씨 (?-1550, 60 추정)	소모자 (여모)	겉: 緞子, 안: 명주/ 아청색	육변에 輪臺를 두름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보고서』(2000), 안동대학교박물관.
김합 (1568-1588)	소모자	무문단/아청색	삼각형 6쪽 이은 후 대륜을 두름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2006), 문화재청.
동래정씨 (1574-1669)	솜모자	공단(명주), 솜/ 청색	육합	『한국복식』 8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평산신씨 (16세기 후반 추정)	소모자	무문단, 솜/쪽빛	육합, 머리 꼭대기에 매듭단추	『금선단 치마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2005), 민속원.
진주류씨 (1600년대 추정)	소모자 (여모)	사경교라	원통형에 상부모서리 4군데를 띠아 제작	『진주류씨합장묘출토복식』(2006), 경기도박물관.
경주이씨 (1600년대 추정)	소모자 (여모)	비단, 솜	육합모 형태	『조선중기의 우리 옷』(2000), 광주민속박물관.
이천기 (1610~1666)	솜소모자 2점	면포, 솜/ 아청 명주, 솜/아청	삼각형 6쪽 이은 후 직사각형 두 조각을 이은 넓은 띠를 두름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2006), 문화재청.
구례손씨 (17세기 초)	소모자 (여모)	비단	육합모형태, 끈이 달림.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2006), 문화재청.
전 박장군묘 (17세기 중엽 추정)	편직소모자 명주소모자	견직물/ 명주	원통형(연결선 없음) 6조각의 삼각형을 이은 후 輪臺를 두름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2006), 문화재청.
진주하씨 (?-1652)	소모자 (여모) 2점	명주, 솜/ 아청색	삼각형 6쪽 이은 후 직사각형 두 조각을 이은 넓은 띠를 두름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2006), 문화재청.
해평윤씨 남아미라 (1675-1683 추정)	소모자	명주, 겹,	육변, 꼭대기에 매듭장식, 끈이 달림	『남아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2002), 석주선기념박물관.

4. 氈帽, 羊毛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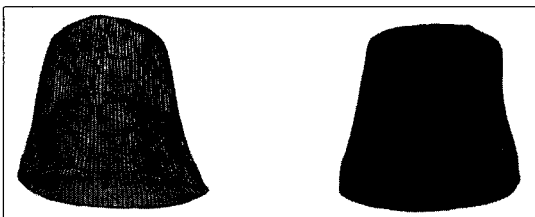
아동용 한자학습서인 『蒙諭編(1810)』¹⁶⁾에는 ‘○氈帽 감투 小帽○’, 어휘 분류 사전인 『事類博解(1855)』¹⁷⁾에는 ‘○小帽 氈帽 氈감투 羊毛帽 帽子 감투○’라고 표기하고 있다. 즉 ‘氈帽, 羊毛帽’라는 한자명칭은 앞서 설명한 ‘小帽(子), 帽子’와 함께 모두

감투라는 우리말 명칭으로 언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氈帽와 羊毛帽는 양자 모두 재료에 있어 모제품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毛를 재료로 하여 제작된 소모 혹은 모자를 출토유물에서 보면, 그림 12와 같이 모제품의 소모자형 쓰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들이 모두 ‘감투’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모직모(출처 : 『霞川 高雲 (1479-1530)출토유물(2000)』)

이 밖에 우리말에 대응되는 한자명칭을 기록한 『國漢會語(1895)』¹⁸⁾에는 '감투 宕巾 cap'이라고 하여 감투의 한자명칭을 탕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宕巾'은 사대부 계층에서 망건(網巾)의 덮개 및 관모(冠帽)의 밑받침으로 착용한 쓰개로써, 조선 말기의 탕건은 그림 13과 같이 말총으로 엮어 만들었으며 챙이 없이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턱이 진 형태의 것이다. 따라서 앞서 감투로 언해하였던 한자명칭들과는 용도나 턱이 진 모부(帽部)의 형태 등에서 구별이 된다. 그러나 감투라고 언해 했던 '小帽子, 帽子, 頂帽子, 氈帽, 羊毛帽'는 모두 챙이 없이 頭頂部를 덮어씌우는 형태의 것으로, 이러한 형태상의 특징을 갖는 쓰개를 통칭하여 '감투'라고 했었음을 감안하면, 감투를 다시 이와 같은 유형의 하나인 '宕巾'이라는 한자명칭으로 표기했을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감투거리, 감투밥¹⁹⁾' 등 감투와 관련된 표현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감투의 형상에서 유래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3〉 탕건(출처: 『朝鮮時代的 冠帽(1988)』, p. 19)

Ⅲ. 감투의 어원과 용도 · 형태 · 재료 · 종류

감투(감투)라는 한글명칭은 앞서와 같이 다양한 한자명칭과 사음자를 가지고 있으며 명칭의 쓰임새도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우리말로 감투라 부르게 된 명칭의 유래와 용도, 종류별 특징과 재료, 형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감투의 어원

감투는 『朝鮮王朝實錄』 성종 때의 기록을 보면 甘套²⁰⁾, '甘岫²¹⁾', '甘土²²⁾' 등 한자표기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감투'의 우리말 발음에 상응하는 다양한 한자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雅言覺非(1819)』에는 '鬮頭는 잘못 옮겨져 甘土로 되고 중국 음은 본래 감투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 음은 시기로 보면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만주족의 언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同文類解(1748)』에 '帽子'에 대한 만주어 발음을 '감투'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투라는 한글표기는 만주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학분야에서는 감투의 어원을 넓게는 중국어²³⁾²⁴⁾, 좁게는 중국어 중에서도 만주어²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이거나 모자(帽子)에 대응되는 조선어라는 견해²⁶⁾도 뚜렷한 근거 없이 제시되고 있다. 또 만주어 사전에 'qamtu'는 '펠트 모자, 헬멧의 펠트안감'이라 하였고, 'qamtun'는 '천조각, 수건, 스카프, 숄, 머리쓰개'라 하여²⁷⁾ 우리가 사용하는 대중적인 쓰개의 개념인 '감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문헌과 기타 연구 자료로 본 감투의 어원은 고유어라는 견해와 만주어라는 견해로 나뉘지는데, 본 연구자는 감투가 만주어의 발음과 일치한다는 점, 몽고어에서 유래하여 한글명칭으로 정착한 '털릭→철릭'이 綴翼, 襪翼, 天翼, 千翼, 天益 등과 같이²⁸⁾사음한 한자표기가 많다는 점에서도 고유어라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만주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데에도 이견(異見)이 있다. 이는 감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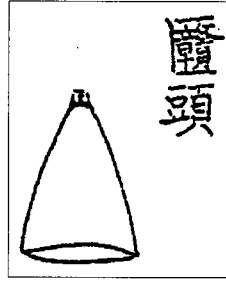
라는 한글표기는 『訓蒙字會』²⁹⁾에도 기록되어 있어 조선 초기부터 한글명칭으로 존재하고 있고, 사음자의 하나인 ‘坎頭’가 이미 『朝鮮王朝實錄』태종 16년(1416)의 기록³⁰⁾과 『高麗史』³¹⁾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청대에 사용된 만주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투라는 발음에 가장 가까운 ‘坎頭’라는 용어의 사용 시기를 유념한다면, 중국 청대 만주족의 조상인 여진족이 사용하던 언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감투의 사용례

감투는 『高麗史』輿服志 冠服에 관한 규정에 처음 등장하는데, “녹관(祿官) 근무 시 삼관(三官)의 각 영위정(領尉正)은 감투(坎頭)·고정림(高頂笠)·직령(直領)·전대(纏帶)를 착용한다.”라고 있어 감투를 갓 안에도 착용했었음을 알 수 있다.

감투는 조선초기의 기록인 『朝鮮王朝實錄』태종 16년(1416)³²⁾에 의하면 ‘항리가 보통 때 감투[坎頭]를 써 평민이나 다름없음이 예가 아니기 때문에 방립에 혹질을 하여 허용하도록 하자’는 기록이 있어 평상시 비교적 낮은 계층에서 사용되던 쓰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朝鮮王朝實錄』성종³³⁾ 12월의 기록들에서 보면, 감투는 모의(毛衣), 이엄(耳掩), 모관(毛冠) 등 방한모나 방한용 의복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방한용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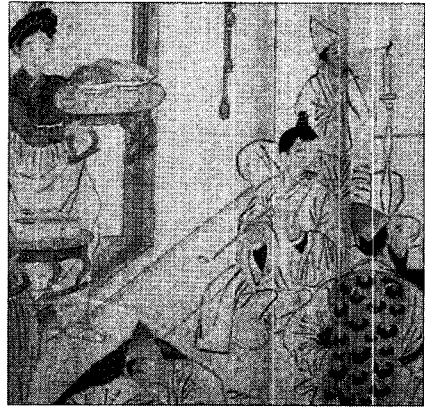
이외에도 감투는 『武藝圖譜通志』보예 관복에 의하면 그림 14, 15와 같은 형상으로 왜검, 교전, 권법을 익히는 자가 쓰는 쓰개로 기록되어 있고, 『萬機要覽(1808)』³⁴⁾에도 군기(軍器)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 무복(武服)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삼각뿔 모양의 감투는 그림 16, 17과 같이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서민남자들의 일상용 쓰개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燕行錄選集』³⁵⁾, 『海行摠載』³⁶⁾의 기록에는 우리의 쓰개를 열거하는 내용 중에 紗帽, 宍巾, 耳掩, 揮項, 網巾, 笠 등과 함께 감투[顛頭]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남자의 일반적인 쓰개의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감투는



〈그림 14〉顛頭(출처: 『武藝圖譜通志』卷之四, 冠服圖說, 六十二, 東文選)



〈그림 15〉무예 시 감투의 착용모습(출처: 『武藝圖譜通志』, 卷之二, 倭劍譜, 四十九, 東文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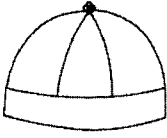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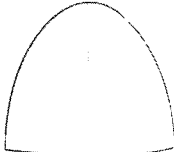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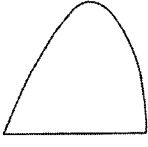


〈그림 16〉투전(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編(1999),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 100)



〈그림 17〉웃놀이(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編(1999),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 100)

<표 2> 소모자의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육면에 윤대를 두름	원통형으로 제작 후 뒷부분의 네 곳을 집어 고깔형으로 제작	원통형으로 제작 후 정수리의 4 부분을 박아 고깔형으로 제작	고깔형(펠트나 편직)으로 이은 선이 없음

관리들의 쓰개로, 일반남자들의 쓰개로도 사용되는 등 대중적으로 사용된 쓰개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투- 싸움, 감투를 다루다, 감투(를) 벗다, 감투(를) 쓰다, 감투(를) 씌우다³⁷⁾’ 등 감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3. 감투의 형태·재료·종류

감투는 『四禮便覽』³⁸⁾에 ‘여섯 조각을 이어 만든다’고 하여 중국의 소모자의 한 유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朝鮮王朝實錄』 성종 7년 12월의 기록에 있는 ‘甘吐付耳掩’이라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 귀마개와 같이 이어미 붙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을 통해 본 감투는 <표 2>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유형 1은 삼각형 여섯 조각을 이은 후 하단에 띠를 둘러 마무리한 형태로 변수(1447-1524), 이석명(1513-1583), 高靈申氏(1530년대초-1580년), 심수륜(1534-1589) 묘 출토의 것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또 이러한 유형 중에는 하단에 두른 띠가 두 조각의 직사각형을 이어 두른 것도 있는데, 이천기(17세기- 18세기초)와 진주하씨(?-1652)에서 확인된다. 유형 2는 원통형의 윗부분 네 곳을 안으로 접어 넣어 고깔형으로 만든 것으로 고령신씨(1530-1580)의 유물에서 확인된다. 유형 3은 유형 2와 유사한데, 원통형으로 제작한 후 정수리 4 부분을 박아 넣어 둥근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진주류씨의 유물에서 확인된다. 유형 4는 펠트나 편직으로 된 고깔형상의 것인데, 세로 봉합선이 한줄 있거나 봉합선이 없이 제작된 것으로 고운(1479-

1530) 묘, 전(傳) 박장군 묘의 유물에서 확인되고 있다.

감투의 재료는 『朝鮮王朝實錄』에서 보면 아청 필단 초피 감토 부이엄(鴉靑匹段貂皮甘吐付耳掩)³⁹⁾, 아청 단자 감토(鴉靑段子甘吐)⁴⁰⁾, 흑양모 감토(黑羊毛甘土)⁴¹⁾, 아청저사 감토(鴉靑紵絲甘吐)⁴²⁾ 등이 있고, 『四禮便覽(1844)』⁴³⁾에 보면 小帽가 곧 지금의 감투(鬘頭)라고 하면서 ‘紗·羅·緞’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견직물이나 모직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견직물에서는 段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색상은 대체로 아청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발굴된 출토 복식 보고서에서도 견직물과 모직물, 특히 견직물 중에서는 ‘段’이 대부분이었던 점과 일치하였고, 색상이 남아 있는 유물에서 보면 아청색 또는 청색으로 기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문헌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투는 복자감투[覆主鬘頭·幅子鬘頭], 담감투, 당감투, 자리감투 등 용도나 재료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확인된다.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복자감투는 ‘중이나 늙은이들이 추위를 막기 위하여 쓰는 모자의 하나인데, 담(毯)으로 등글게 만들되 양옆으로 접어 올렸다가 펴서 내리면 뺨까지 가리게 된 것으로, 중국에서 전래하였다.’⁴⁴⁾고 하였는데, 복자·복주의 뜻을 『조선말사전』에서 보면 이는 같은 말로서 ‘주발의 뚜껑⁴⁵⁾’을 지칭하는 단어라 하였으므로 복자(주)감투라는 명칭도 복주의 모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담감투는 『物名攷』⁴⁶⁾에 보면 ‘渾

脫帽'를 '卽今羊毛帽 담감토'라 하고 있어 '감토' 중에서도 양모로 만든 것을 '담감토'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담감토는 17세기 전기 현풍곽씨의 언문집에 기록되어 있는데⁴⁷⁾, 『物名攷』⁴⁸⁾의 異本에는 앞서 본 『物名攷』⁴⁹⁾의 '담감토'를 '당감토'로 기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담감토와 당감토는 같은 것을 지칭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리감투⁵⁰⁾는 이불, 베개 등 취침 용구와 함께 사용된 점과 우리말에 잠잘 때 입는 옷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자리옷, 자릿적삼⁵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침 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지 않도록 쓰는 감투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어휘집에 다양한 한자명칭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된 '감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헌 기록 및 유물, 회화 자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었다.

감투는 어휘집을 통해 小帽子, 頂帽子, 帽子 등 중국 원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쓰개의 우리말 풀이였다. 그 외 감투에 관한 한자 표제어를 통해 보면 氈帽, 羊毛帽 등 모직물로 제작된 모자를 통칭하는 등, 챙이 없이 머리의 형상에 맞게 제작된 쓰개를 지칭하는 명칭이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조선 말기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인 '宕巾'이 감투의 한자 표기로도 표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감투는 하나의 명칭이 여러 가지 형태, 용도 등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국어학에서 보면 다의어로 분류될 수 있는 명칭이다.

감투의 어원은 만주어에 '펠트 모자, 헬멧의 펠트 안감'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qamtu'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주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감투'의 발음을 寫音한 '坎頭'라는 명칭이 있어 같은 계통이면서 시기를 앞선 여진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감투는 일반 남성들의 일상적인 쓰개로 사용된 외에도 武藝服, 軍服에 쓰는 '武服用' 쓰개로도 사용되었다.

감투는 머리에 맞는 형태로 여섯 쪽을 이은 후 輪臺를 둘러 만든 형상의 것이 많으며 이로써 소모자는 곧 감투라고 이해될 수 있으나 감투는 일반적으로 챙이 없이 두정부를 덮어씌우는 쓰개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소모자는 감투의 한 유형일 뿐이다. 감투의 색과 재료는 출토품과 문헌을 통해 대체로 아청색, 청색의 견직물이나 모직물을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태, 재료, 용도에 따라 각각 '幅子鬘頭', '담감토', '자리감토'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감투는 '감투밥, 감투거리, 감투쓰다, 감투벗다, 감투싸움' 등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머리의 형상에 맞게 제작된 형태상의 특징과 머리에 쓰는 것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명칭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감투쓰다, 감투싸움' 등 벼슬을 비유하는 속된 표현으로 사용된 이유도 대중들에게 쓰개를 대표한 명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모 발굴조사보고서 (2000). 안동대학교박물관.
판결사 김흥조 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1998). 영주시청, p. 221.
- 2) 이은주 (2001). 17세기 전기 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복식, 51(8), pp. 29-30.
이은주 (2005). 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및 유물명칭 변경 사례연구. 복식, 55(6), pp. 112-113.
- 3) 영인본 譯語類解·譯語類解補編 (1974). 서울: 亞細亞文化社, p. 87.
- 4) 四禮便覽, 이화출판사, 권 1, 冠禮 陳冠服
"帽子(丘氏)曰今世帽子有貳等 所謂大帽者 乃是笠子 以蔽兩日 所謂小帽者 或紗或羅或緞爲之 小帽卽今(鬘頭)".
- 5) 주석보. 中國古代服飾史, p. 384.
- 6)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선조 26년11월22일(임인).
- 7)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선조 31년11월6일(정해).
- 8)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광해군 6년1월15일(무진).
- 9)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숙종 37년10월19일(갑술).
- 10) 영인본 訓蒙字會 (1973). 大提閣. 中 服飾 十字一.
- 11) 영인본 新增類合 (1972).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p. 76.
- 12) 영인본 同文類解 (1995). 홍문각, p. 115.
- 13) 才物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p. 54.
- 14) 영인본 蒙語類解·蒙語類解補編 (1971). 서울大學校出版部, p. 86.

- 15) 沈從文 (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p. 406.
- 16) 蒙諭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p. 18.
- 17) 영인본 事類博攷 (1994). 민장문화사, p. 124.
- 18) 國漢會話 (1986). 태학사, p. 124.
- 19) 신기철 · 신용철 편저 (1992). 새 우리말 큰사전(상). 삼성출판사, p. 96.
- 20)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3년 12월16일(무인).
- 21)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5년 12월16일(정유).
- 22)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14년 3월 12일(갑진).
- 23) 심재기 (2000). 국어 어휘론 신강. 태학사, p. 13.
- 24) 강헌규 (2003). 국어 어원학통사. 이희, p. 121.
- 25) 이기문 (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p. 221.
- 26) 조영언 (2004). 한국어 어원사전. 다솜출판사, p. 19.
- 27) 조영언 (2004). 위의 책, p. 19.
- 28) 강순제 (1981). 帖裏小考. 성신여자대학교 논문집, 12, pp. 23-24.
- 29) 최세화 (1993). 漢字教本三書研究 附影印本. 태학사, 訓蒙字會 中 二十二 後.
- 30)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태종16년 1월 12일(을사).
- 31) 高麗史. 卷二十六典服一 冠服通制.
- 32) 27)참조.
- 33)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 3년 12월16일(무인), '.....毛衣 30, 防衣 2백, 翻巨知 3, 甘套10, 耳掩.....'.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 5년 12월16일(정유), '.....匹段貂皮耳掩 甘吐耳掩.....'.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 5년 12월 19일(경자), '..... 鴉青匹段貂皮耳掩 鴉青匹段貂皮甘吐耳掩 鴉青匹段貂皮毛冠.....'.
- 34) 萬機要覽. 軍政編三 御營廳 軍器
".....木棉周莫衣五十領 甘土五十立.....".
- 35) 燕行錄選集, 戊午燕行錄 4권, 기미년 1월 12일
"아국에서는 피인이 쓴 것을 '마래기'라 하고 피인은 '모자'라 하니, 피인은 머리에 쓴 것이 다 만 마래기뿐이라, 다른 명색이 없더라. 아국은 갓과 병거지며 紗帽와 宕巾이며 鬮頭·耳掩·揮項·망건·평량자·삿갓[笠]이 다 각각 명색이 다르나, 피인은 보는 자가 一併 모자라 일컬 으니.....".
- 36) 海行摠載. 日本往還記, 丙申 12월 9일.
"男子.....無網巾鬮頭笠子耳掩袴禪行纏靴鞋.....".
- 37) 신기철 · 신용철 편저 (1992). 새 우리말 큰사전(상). 삼성출판사, p. 96.
- 38) 四禮便覽. 이화출판사, 권 1, 冠禮 陳冠服
“(圖會)用帛六瓣縫成之.....”.
- 39)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 5년 12월 19일(경자)/ 성종7년 12월 23일(임진).
- 40)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 24년 12월 7일(정묘).
- 41)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성종14년 3월 12일(갑진).
- 42) 朝鮮王朝實錄. 동방미디어, 연산 5년 7월 20일(무인).
- 43) 17) 참조
- 44) 이희승 (2001). 국어대사전. 국민서림, p. 1621.
- 45) 연변사회과학원어언연구소편 (1992). 조선말사전 2. 연변출판사. pp. 239-240.
“(지난날) 중이나 로인들이 추위를 막기 위하여 쓰
는 짐승의 털을 짓이겨 압착한 담쫓각으로 복주께 같이 만든 모자, 령엿을 접어 올렸다 펴서 내리던 뺨까지 가릴 수 있게 된다. : 복주께(주발의 뚜껑)”.
- 46) 物名攷.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p.4.
- 47) 이은주 (2001). 17세기 전기 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복식, 51(8), pp. 29-30.
- 48) 物名攷. 한국고문연구회(고문연구, 8), p. 250.
- 49) 物名攷.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p. 4.
- 50) 이은주 (2001). 앞의 글. 복식, 51(8), pp. 29-30.
- 51) 이근술 (2001). 토박이말 쓰임사전. 동광, p. 1670.